

# Franz Kafka의 信仰과 思想

孫 永 林

## Glauben und Denken von Franz Kafka

Son Yeong-Lim

### 目 次

- |                  |                       |
|------------------|-----------------------|
| I. 序 說           | Ⅲ. 宗教的 發展過程, 유태敎에의 回歸 |
| Ⅱ. Vater-Problem | A. 유태敎와 基督敎와의 關係      |
| A. 家長으로서의 父親像    | B. Kabbala와 Zionismus |
| B. 宗教的 觀點에서의 父親像 | Ⅳ. 結 語                |

### Zusammenfassung

Es handelt bei diesem Aufsatz hier um die religiöse Anschauung von Franz Kafka und deren Entwicklungsprozeß.

Von diesem Standpunkt aus versucht der Schreiber weder nach der Bilderwelt seiner rätselhaften Dichtung noch nach deren werkimmanenten Deutungen zu streben, sondern die in seinem <Brief an den Vater> als Konflikt mit dem Vater dargestellten Problematiken zu untersuchen und auch den Prozeß seiner jüdischen Religionserneuerung unter den seinerzeitigen, sozial-politischen Umgebungsverhältnissen darzustellen.

### I. 序 說

19世紀末頃부터 20世紀初에 걸쳐 當時 Österreich 및 Ungarland의 二重帝國의 한 地方으로 世界文學의 主流에서 멀리 벗어나 있었던 Tschecho, 그리고 그 首都 Prag를 中心으로 文學活動이 갑자기 開花하여 Kafka, Rilke, Werfel과 같은 世界文學의 主流에 속하는 作家群의 出現은 본래부터의 그들의 資質과 天稟에 맡긴다손 치드라도 이 時代的 環境이 그들에게 미친 影響은 결코 無視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것은 Max Brod를 위시한 Kafka의 知己들에 의한 回想과 同時代人들에 의한 온갖 證言, 그리고 오늘날의 研究者들에 의한 갖은 考證과 實證, 推測 等에 의하여 거의 그 輪廓이 드러나고 있다.

그것은 1) 그들의 天稟의 發芽와 開花라는 時代的 環境과, 2) 當時 Tschecho 居住 유대인이 처해 있던 生存條件과, 3) Slav系 Tschecho가 Österreich라는 German系 民族의 支配下에 있었던 政治的 狀況의 세가지 對立이라는 어려운 緊張狀態로 表現되는 것이다.

Kafka가 유대인이면서 Tschecho에 居住하고 그러면서도 Tschechisch 代身에 Deutsch로 教育을 받는다는 事實은 Deutsch를 使用하는 Tschecho系 유대인이 처해있는 이른바 <뿌리>의 喪失이며, 曖昧한 多岐性에의 疑惑을 감춘 釋然하지 못한 餘韻을 남기는 것이다.

이러한 時代的 環境의 影響과 함께 Kafka에게 影響을 미친 많은 藝術家, 思想家, 그리고 時代思潮 등은 大別하면 두 가지로 나타난다. 그 하나는 作品自体에 대한 直接的인 影響이며, 다른 하나는 그의 人生態度에 대한 影響이다. 人生體驗에의 影響은 轉轉하여 作品에 浸透, 描寫되어 이 둘은 떼어놓을 수 없는 不可分의 關係를 맺고있다.

Kafka의 形象世界는 어느 特定한 世界觀的·神學的·倫理的·社會的·政治的 Idee를 어떤 感性的 事件이나 行爲속에 具象化하여 거기에 이른바 詩的 姿態를 賦興한다는 것이 問題가 되고 있지 않으며 게다가 讀者에게 주어진 時空的 내지는 心理的 現實을 可能한 限 生생하게 眞實되게 表現하고, 그 숨겨진 意味를 나타내거나 풀려고도 하지 않는다. 거기엔 希望과 絶望·眞實과 虛偽·罪와 純潔·自由와 拘束·存在와 非存在·信念과 疑惑·生과 死·知와 無知·此岸性과 同時에 彼岸性等, 그와같은 온갖 矛盾의 不斷한 緊張속에 있는 <人間의 存在>가 形象과 精神의 言語속에 形成되는 것이다. 그 形象과 言語도 이와같은 矛盾에 빠진 緊張, 이러한 人間矛盾의 同時存在를 充實하게 그리하여 眞實하게 反映하려할 때는 必然的으로 逆說이라는 類形을 取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叙述形式, 그 自体가 마침내는 形象이 設定됨과 同時에 廢棄되고 解釋이 成立됨과 同時에 否定된다는 叙述本然의 姿勢가 그대로 人間存在의 表現이 되는 것이다.<sup>1)</sup>

이러한 Kafka의 形象世界는 두개의 다른 世界, 다시 말해서 有限한 現實의 實動世界와 總和的인 긴 하나 非現實的 比喩的 實存世界라는 이 두 世界가 相互斷絶된 채 絶望的으로 對立하여 있는 狀態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 두 世界는 그 本然의 모습이 相異하기 때문에 결코 一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두 世界는 否定·保留·綜合이라는 辨證法的 三段階를 거쳐 Aufheben되지 않으면 안되는 人間存在인 것이다. Kafka는 이 可能性을 目的한 作品中에서 試圖하지 않고 二律背反된 채 그대로 宿題로 남겨두고 있는 것이다.<sup>2)</sup>

이와같은 Kafka의 作品에 形象化되고 있는 온갖 矛盾의 困惑이 그에 의하여 如何히 Aufheben된 것인지, 그것은 Brod를 위시하여 W. Emrich, H. Binder, H. Politzer, K. Wagenbach, F. Weltsch, M. Buber, G. Janouch等, 그밖에도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研究되어 왔으며, 또 아직 그 研究가 繼續되고 있다. 이들은 Kafka와 Prag와의 關係와 그들의 個人的인 印象記, 그리고 當時의 人種的·政治的·社會的 諸狀況 등을 考察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같은 諸狀況을 바탕으로 한 筆者의 本論文에서의 試圖은 Kafka의 <信仰과 思想>, 특히 그의 『Brief an den Vater』<sup>3)</sup>에 表現되고 있는 <Vater-Problem>을 中心으로 被虐的(masochistisch) 絶望에 빠진 個人的 心理分析을 主体로하는 Kafka의 解釋과 『Tagebücher』에 나타나 있는

1) vgl. W. Emrich : Zur Ästhetik der modernen Dichtung, in : Akzente 1, 1954, H. 4, S. 376 및 拙稿 : Franz Kafka (I), 濟州大學 教養課程部 論文集, 第5輯, S. 30, 1976 參照.

2) vgl. W. Emrich : Die Sorge des Hausvaters, in : Akzente 13, 1966, H. 4, S. 302 - 303 및 拙稿 : Franz Kafka (II), 濟州大學 論文集, 第9輯, S. 222-223, 1977 參照.

3) F. Kafka : Hochzeitsvorbereitungen auf dem Lande und andere Prosa aus dem Nachlaß, Fischer Taschenbuch Verlag, 1976, S. 119-162 (F. Kafka Gesammelte Werke, Hg. von Max Brod, Taschenbuchausgabe in 7 Bdn, Bd. 6)에 收錄되어 있는, 1919年 그가 36才때 아버지 앞으로 쓴 편지로써 어머니를 통하여 傳達하려 하였으나 그 內容이 너무 辛辣하고 過激하여 결국 이것은 어머니에 의해 傳達되지 아니 하였으며, 死後 Brod에 의해 出版되어 Kafka研究에 貴重한 資料가 됨.

當時의 時代的 社會的 環境을 中心으로 한 그의 <宗教的 發展過程>을 究明함으로써 보다 作家에의 近接이 되리라 믿는다.

이러한 試圖는 Kafka의 思想을 <判定>하고 그것을 다른 思想과 比較하기 以前에 먼저 Kafka를 Kafka的 視覺에서 解釋하는, 다시 말해서 그의 精神上的 發展의 普遍的 過程을 解釋하는 것이 더욱 重要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가 유대 敎育에서 成長했다는 事實에서부터 出發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 II. Vater-Problem

### A. Vaterbild als Hausvater

1883年 7月 3日 Prag 商業地區의 中心部인 Karpfengasse와 Maiselgasse의 Eckhaus에서 Löwy家 出身의 Julie Kafka는 長男 Franz를 낳는다. Fleischmarkt의 <Deutschen Knabenschule>와 當時 Prag에서 定評있던 <Kinsky-Palias>의 <Altstädter Deutsche Gymnasium> 時節을 통하여 Österreich 및 Ungarland 支配下의 Tschecho人들 사이에서 生活하면서 Deutsch를 使用하던 이 유대少年은 차츰 自身の 特異성과 孤立을 銳利하게 認識하기에 이른다. 참다운 그의 祖國은 Getto (Judengasse)한복판에 있는, 獨自의 傳統과 信仰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臨時的 隱身處인 그의 <집>이었다. 그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은 Löwy家 出身의 그의 어머니였다. 그러나 그의 生涯를 支配하게 되는 衝動的 性格을 繼承한 것은 아버지로부터였다.

Wossek의 精肉商 Jakob Kafka의 아들 Hermann은 고된 少年時節을 보낸다. 혼자힘으로 굳굳하게 慎重히 犧牲과 勞苦를 견디며 家庭의 繁榮의 기틀을 마련하고 全家族을 充分히 扶養한 이 Hermann의 一生은 아들 Franz의 想像力과 天稟에 있어서의 결코 변치않는 生생한 模範이었던 것이다. 그는 『Brief an den Vater』에서 아버지가 家族들과 괴로움을 함께하며 사랑과 溫情으로 家族들을 대해주던 때를 回想하면서, 當時 그는 울었으며 지금도 울고 있다고 쓰고 있다.

[Zu solchen Zeiten legte man sich hin und weinte vor Glück und weint jetzt während man es schreibt.]<sup>4)</sup>

그러나 이 專制君主다운 商人의 模範이 子息에게 과연 自信을 주었던 것일까? 아니, 그것은 도리어 子息을 小心하게 만들어 버렸던 것이다. Kafka의 이 『Brief an den Vater』는 父子間의 놀랄만한 關係를 叙述하고 있는 詳細하기 이를데없는 하나의 自叙傳이며, 이 內容에의 通達은 곧 Kafka의 神秘를 洞察하는 것이 된다. 그는 이 便紙에서 그가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있는 까닭을 아버지의 子息에 대한 苦情을 빌어 이렇게 쓰고 있다.

[Du hast Dein ganzes Leben lang schwer gearbeitet, alles für Deine Kinder, vor allem für mich geopfert, ich habe infolgedessen <in Saus und Braus> gelebt, habe vollständige Freiheit gehabt zu lernen was ich wollte, habe keinen Anlaß zu Nahrungssorgen überhaupt gehabt; Du hast dafür keine Dankbarkeit verlangt, Du kennst <die Dankbarkeit der Kinder>, aber doch wenigstens irgendein Entgegenkommen, Zeichen eines Mitgeföhls; statt dessen habe ich mich seit jeher vor Dir verkrochen, in meinem Zimmer, zu Büchern, zu verrückten Freunden, zu überspannten Ideen: offen gesprochen habe ich mit Dir niemals, ...auch sonst nie Familiensinn gehabt, um das Geschäft und Deine sonstigen Angelegenheiten habe ich mich nicht gekümmert.]<sup>5)</sup>

4) a. a. O. S. 132.

5) a. a. O. S. 119.

Kafka는 될 수 있는 限 아버지와 和解하려 努力하지만 아버지로 인한 自身の 劣等意識은 좁혀지지 아니한다. 그래서 그는 그 나름의 길을 가려하지만 그것은 아버지에 의해 遮斷된다.

[Ich hätte ein wenig Offenhalten meines Wegs gebraucht, statt dessen verstelltest Du mir ihn, in der guten Absicht freilich, daß ich einen anderen Weg gehen sollte... überall hätte ich die Aufmunterung gebraucht. Ich war ja schon niedergedrückt durch Deine bloße Körperlichkeit.]<sup>6)</sup>

게다가 그는 아주 유년하게 아버지가 自身の 意見엔 絶對인 自信을 갖고 다른 사람의 意見은 전혀 터무니 없는 엉터리로 看做했으며, 이러한 아버지의 自信이 너무도 큰 것이어서 실제로 그것이 事理에 맞지 않는 데에도 그것을 正當化했다는 等, 심지어는 暴君이라는 말을 빌어 아버지를 꼬집고 있다.

[Du hattest Dich allein durch eigene Kraft so hoch hinaufgearbeitet, infolgedessen hattest Du unbeschränktes Vertrauen zu Deiner Meinung... In Deinem Lehnstuhl regierst Du die Welt. Deine Meinung war richtig, jede andere war verrückt, überspannt, meschugge, nicht moral. Dabei war Dein Selbstvertrauen so groß, daß Du gar nicht konsequent sein mußt und doch nicht aufhörtest recht zu haben. Es konnte auch vorkommen, daß Du in einer Sache gar keine Meinung hattest und infolgedessen alle Meinungen, die hinsichtlich der Sache überhaupt möglich waren, ohne Ausnahme falsch sein mußten...Du bekamst für mich das Rätselhafte, das alle Tyrannen haben, deren Recht auf ihrer Person, nicht auf dem Denken begründet ist. Wenigstens schien es mir so.]<sup>7)</sup>

아버지의 肖像에 비친 이러한 照明을 좀 바꿔보면 이 肖像은 어김없는 喜劇도 되고 悲劇도 되는 것이다. 事實 아버지란 本心은 親切하면서도 까다롭기 짝이없는 <집>이며, 입버릇이 거칠고 나쁘지만 惡意는 없고, 입버릇만큼 실제로 甚하지 않았으나 그것으로 아버지의 權力에 無條件 壓倒되는 子息에게는 너무도 深刻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었다.

[Es war auch wahr, daß Du mich kaum einmal wirklich geschlagen hast. Aber das Schreien, das Rotwerden Deines Gesichts, das eilige Losmachen der Hosenträger, ihr Bereitliegen auf der Stuhllehne, war für mich fast ärger. Es ist, wie wenn einer gehängt werden soll. Wird er wirklich gehenkt, dann ist er tot und es ist alles vorüber. Wenn er aber alle Vorbereitungen zum Gehenwerden miterleben muß und erst wenn ihm die Schlinge vor dem Gesicht hängt, von seiner Begnadigung erfährt, so kann er sein Leben lang daran zu leiden haben. Überdies sammelte sich aus diesen vielen Malen, wo ich Deiner deutlich gezeigten Meinung nach Prügel verdient hätte, ihnen aber aus Deiner Gnade noch knapp entgangen war, wieder nur ein großes Schuldbewußtsein an. Von allen Seiten her kam ich in Deine Schuld.]<sup>8)</sup>

게다가 그는 아버지가 세가지 論證을 들어 自身에게 전될 수 없을 程度의 猖披를 줄려고 했다고 쓰고 있다.

[...erstens daß Du unschuldig bist, zweitens daß ich schuldig bin und drittens daß Du aus lauter Großartigkeit bereit bist, nicht nur mir zu verzeihen, sondern, was mehr und weniger ist, auch noch zu beweisen und es selbst glauben zu wollen, daß ich, allerdings entgegen der Wahrheit, auch unschuldig bin.]<sup>9)</sup>

6) a. a. O. S. 123.

7) a. a. O. S. 124.

8) a. a. O. S. 133—134.

9) a. a. O. S. 161.

그리하여 그는 아버지의 他人에 대한 不信이 그가 自身에 대해 갖는 不信에 比하면 별것 아니며 아버지가 自身을 그런 式으로 키워온 것이 아니냐고 結論지우고 있다.

[So groß ist ja nicht einmal Dein Mißtrauen gegen andere, wie mein Selbstmißtrauen, zu dem Du mich erzogen hast.]<sup>10)</sup>

이 두 사람의 氣質의 對照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한쪽은 外向的이고 多血質的인 主役의 人間으로 活動家며, 事實만을 믿는 現實主義者다. 다른 한쪽은 内向的이고 神經이 날카로운 端役의 人間으로 知識人이며, 事物의 背後에 숨겨져 있는 온갖 象徴만을 探求하는 藝術家다. Franz에겐 言語는 手段아닌 目的이며, 作品이야 어떻게 되든 作家의 關興할바 아니며, 그것은 作家를 끌어들이는 作品의 創造와 配어놓을 수 없는 目的인 것이다. 이와같은 對照는 특히 Kierkegaard의 境遇와 마찬가지로 人格上의 眞病을 誘發시키고 있다. 결국 Ödipus-Komplex는 그것이 無意識中에 宗教的 意義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清算되는 일이 없었던 것이다. <아버지>란 專制的 神이며 子息에겐 <生命의 나무>의 열매를 따지 못하게 함으로써 根源的으로 永遠한 罪意識을 지우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要求만을 내세우는 이 立法者는 自身이 發하는 法은 지키지 아니한다. 食卓에서 子息에겐 儀式이나 禮法을 強要하면서도 自身은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Knochen durfte man nicht zerbeißen, Du ja. Essig durfte man nicht schlürfen, Du ja...Man muß achtgeben, daß keine Speisereste auf den Boden fielen, unter Dir lag schließlich am meisten. Bei Tisch durfte man sich nur mit Essen beschäftigen, Du aber putztest und schnittest Dir die Nagel, spitztest Bleistifte, reinigtest mit den Zahnstocher die Ohren.]<sup>11)</sup>

Kafka의 斷言에 의하면 이 結果 世界는 三分되고 있다. 그 첫째 部分에서 子息은 奴隸로 살며, 둘째 部分에선 아버지가 혼자 支配하고 命令하고, 또 그 命令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화를 내고 있다. 그리하여 幸福하리라 생각되던 세째 部分에서는 거기에 接近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그는 自身이 살 수 있는 곳은 아버지가 감출 수도 없고 아버지의 손이 미치지 아니하는 그러한 곳이라고 謙虛한 態度로 익살스레 말하고 있다.

[Und es ist mir dann, als kämen für mein Leben nur die Gegenden in Betracht, die Du entweder nicht bedeckst oder die nicht in Deiner Reichweite liegen. Und das sind entsprechend der Vorstellung, die ich von Deiner Größe habe, nicht viele und nicht sehr trostreiche Gegenden.]<sup>12)</sup>

결국 이와같은 父子間의 不斷한 葛藤 (Konflikt)이 그로 하여금 家庭環境과 보다 持續的이고 깊은 因果關係를 맺게 하고 있으며, 나아가 父子間의 人間關係가 보다 彼岸的인 關係으로 對應하기에 이르는 Vater-Komplex를 誘發하고 있는 것이다.

## B. Vaterbild in religiöser Anschauung

Hermann은 織物行商으로 Tschecho의 여러 마을을 轉轉하는, 그러나 金曜日 午後에는 宗教上의 規則을 遵守하기 위하여 自身이 居住하는 聚落(Dorfgemeinde)으로 돌아오는 猶太人 中の 하나다. 시골아이들과 警官의 눈림감인 이들 行商들은 막나니 猶太人으로 불리었다. Wossek-Dorfgemeinde 出身의 Hermann은 織物商으로 大成한 後, 그는 自身이 입고있는 두 다리의 傷處며, 齟齬로 苦

10) a. a. O. S. 162.

11) a. a. O. S. 126.

12) a. a. O. S. 158.

生했던 일들이며, 겨울철 이른 새벽에 달구지를 끌며 이 마을 저 마을을 轉轉하던 일들을 자랑삼아 同僚나 子息들에게 들려줌으로써 Franz의 非難을 받고있다.<sup>13)</sup> 그는 이러한 大成의 아버지를 單純히 不壞의 強靱의 象徴으로 보지는 않았으며, 그에 못지않아 아버지의 물결은 宗教的 沒落에의 생생한 象徴으로 그에게 照明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世界와 絶對에 관한 ユ대敎의 觀念을 保持하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放棄해버렸던 것인지는 이를 뒷받침하는 記錄이 『Brief an den Vater』에 잘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그는 自己自身과 아버지와 複雜한 關係를 세 段階로 叙述하고 있다. 그것은 아버지와 宗教形式이 一体의 것으로 비쳤던 幼年時節의 素朴한 認識으로부터 始作하여, 아버지의 宗教的 空虛가 暴露된 青年期의 憎惡를 거쳐, 그나마 空虛한 宗教를 사랑으로 理解하려는 晩年의 人間味 넘치는 變化이다.

幼年期의 그것은 그가 <Synagoge>(Jüdischer Tempel)에 잘 나가지도 않고 敎理를 履行하지 않음으로써 아버지에게 느끼는 罪責感으로 表現되고 있다.

[Als Kind machte ich mir, in Übereinstimmung mit Dir, Vorwürfe deshalb, weil ich nicht genügend in den Tempel ging, nicht fastete und so weiter. Ich glaubte nicht mir, sondern Dir ein Unrecht damit zu tun und Schuldbewußtsein, das ja immer bereit war, durchlief mich.]<sup>14)</sup>

요컨대 그에게 온갖 儀式과 그 儀式을 게을리 한 나머지 일어나는 罪責感에 대한 겹쳐진 번거로운 苦痛만이 남았던 것이다.

그후 青年期의 그는 ユ대敎에 대한 虛無感을 拂拭할 수가 없었으며, 심지어는 ユ대敎를 한갓 익살스런 장난으로까지 比喩하게 되었던 것이다.

[Später, als junger Mensch, verstand ich nicht, wie Du mit dem Nichts von Judentum, über das Du verfügtest, mir Vorwürfe deshalb machen konntest, daß ich (schon aus Pietät, wie Du Dich ausdrücktest) nicht ein ähnliches Nichts auszuführen mich anstrengte. Es war ja wirklich, soweit ich sehen konnte, ein Nichts, ein Spaß, nicht einmal ein Spaß.]<sup>15)</sup>

뿐만 아니라 ユ대敎儀式에 대한 그의 冷酷한 記述이 繼續되고 있다. 敎會에서는 죽을 것만같은 싫증을 느끼고 멍한 생각에 잠길 때가 많아진다. 한편 집안에서 舉行되는 家族들만의 儀式마저 失笑할 程度의 喜劇으로 轉落하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그의 생각이 그의 信仰의 全部며, 또한 그 알맹이였음을 告白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는 自身의 信仰에 대한 이러한 不敬을 容恕받고자 한다.

[So war es ein Tempel, zu Hause war es unmöglich noch ärmlicher und beschränkte sich auf den ersten Sederabend, der immer mehr zu einer Komödie mit Lachkrämpfen,...Das war also das Glaubensmaterial, das mir überliefert wurde... Wie man mit diesem Material etwas Besseres tun könnte, als es möglichst schnell loszuwerden, verstand ich nicht, gerade dieses Loswerden schien mir die pietätvollste Handlung zu sein.]<sup>16)</sup>

그러나 이러한 아버지의 ユ대敎 權威의 失墜에도 不拘하고 그는 그것을 전혀 忤무니없는 것으로 看做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ユ대인 居住區에서의 아버지의 ユ대敎에 대한 어떤 信念에 基因하고 있는 것 같다.

13) vgl. a. a. O. S. 134, u. Max Brod: Über Franz Kafka, Fischer Taschenbuch Verlag, 1974 (Fischer Bücherei Bd. 1496), S. 13.

14) a. a. O. S. 144.

15) a. a. O. S. 144.

16) a. a. O. S. 145.

[Du hattest aus der kleinen ghettoartigen Dorfgemeinde wirklich noch etwas Judentum mitgebracht.]<sup>17)</sup>

그러나 아버지가 실제로 받아들이고 있던 유대教은 이미 瀕死之境의 것이었으며 그것이 Franz에게 繼承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이 어린 Franz에게 繼承되기에는 너무도 보잘것없는 것이었으며 실령 繼承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송두리째 消滅되고 말았을지도 모른다.

[...darin lag noch genug Judentum, aber zum Weiter-überliefert-werden war es gegenüber dem Kind zu wenig, es vertropfte zur Gänze, während Du es weitergabst.]<sup>18)</sup>

따라서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 幼年期의 信仰에 대한 未練같은 것을 放棄한 사람이면 누구나가 다 그러한 것처럼, Kafka는 信仰이라기보다는 혼해빠진 過程을 거친 不信仰, 아니, 無神論의 立場에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過程은 事實 훨씬 以前부터 始作되고 있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子息이 分明 自覺하고 있는 것은 自身이 信仰을 갖기 以前에 支離滅裂된 유대教의 殘骸만을 繼承했다고 하는 事實때문이다. 宗教의 家長制的 傳統과 地方聚落에서의 先代의 袂別에 뒤이어 二代째로 自身の 世代가 當面하는 宗教問題의 核心에 接하게 됨으로써, 그는 自身을 宗教的으로 버림받은 世代에 속하는 人間으로 생각했으며, 空虛한 形式으로 解消 消滅되어 가는 傳統의 의 벗자식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점차 유대教에서 멀리 離脫해버리지만 그때 갑자기 어떤 轉機가 그에게 닥아온다. 그것은 <유대人問題>에 대한 그의 關心의 蘇生이다. 이 問題는 어쩌면 그것이 單純한 好奇心을 자아내게 하는 것으로 생각될지 모르지만 실상 그것은 重大한 意義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의 유대教에서 派生된 다른 하나의 <完全히 새로운 유대教>가 되는 것이다.

[Es war doch Judentum von Deinem Judentum, das sich hier regte, und damit also auch die Möglichkeit der Anknüpfung neuer Beziehungen zwischen uns.]<sup>19)</sup>

이 말의 重要性은 짐작하기 힘들다. 오히려 그것은 Kafka가 自身の 內面世界(Innenwelt)에서 이미 死滅된 것으로 看做하고 있었던 것이 實은 完全히 死滅되지 않았음을 分明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信仰의 죽음이라고 생각한 것은 信仰의 겨울이었으며, 말라 비뚤어져 떨감으로 밖에 생각지 않았던 나무에 다시 새싹이 움터 올랐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실제로 이 봄은 아버지에 의하여 얻어진 것은 아니었으며, 그것은 새로이 始作된 유대人과의 親密한 交友關係에 의하여 얻어졌던 것이다. 그들과의 親交가 없었다면 아마도 이 나무는 樹液을 잃고 메말라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反對로 그가 유대教에서 生을 얻지 않았더라면 유대人과의 이러한 交際가 어떻게 그의 周圍에 이처럼의 後光을 發할 수 있었을 것인가?

그럼에도 그에겐 아버지와 不和가 繼續된다. 아버지의 立場에선 子息의 마음속에 움트고 있는 이 새로운 유대教를 봄으로써 自身の 存在가 아무런 口實조차 할 수 없는 無意味한 것임을 알게되며 그것이 그로 하여금 노여움을 誘發하게 하고 있다.

[Übrigens war Deine negative Hochschätzung meines neues Judentums sehr übertrieben; erstens trug es ja Deinen Fluch in sich und zweitens war für seine Entwicklung das grundsätzliche Verhältnis zu den Mitmenschen entscheidend, in meinem Fall also tödlich.]<sup>20)</sup>

17) a. a. O. S. 145.

18) a. a. O. S. 146.

19) a. a. O. S. 147.

20) a. a. O. S. 147.

때문에 아버지에게 Franz의 介入으로 유대教가 귀찮은 것이 되고 유대教의 著書는 아예 읽기조차 싫어지고 구역질이 나게 된다는 表現이 이루어진다.

[Durch meine Vermittlung wurde Dir das Judentum abscheulich, jüdische Schriften unlesbar, sie ekelten Dich an.]<sup>21)</sup>

이러한 表現이야말로 그가 아버지가 알고 있는 유대教는 유대教의 殘骸라고 斷言한 바로 그 事實이며 틀림없는 根據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이리하여 아버지와 의 和解의 길은 사라지고 만다. 처음에는 空虛한 信仰(Nichts von Judentum)에 대한 鬭爭이 아버지에 대한 鬭爭이었으나 이제는 信仰을 爭取하기 위한 아버지와 의 鬭爭이 되는 것이다.

[Der Konflikt mit dem Vater bestand (unter anderem) darin, daß der Vater zu wenig Jude war, zu wenig in der Tradition, sogar schon außerhalb des Rituals stand, sei es sogar eines Rituals ohne Sinn. Sogar ein solches Ritual ohne Sinn wäre dem Sohn eine Art von Symbol, von Frühling gewesen...Kafka mußte, um des bescheidenen Inhalts an Judentum willen, den er bei den Schauspielern lernte, gegen den Vater kämpfen.]<sup>22)</sup>

### Ⅲ. Der Prozeß der religiösen Entwicklung, die jüdische Religionserneuerung

#### A. Die Beziehungen zum Judentum und Christentum

如何間 Kafka는 改宗에의 途上에 있었던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基督教信仰에 歸依하는 것처럼 유대教信仰에로 回歸한다. 물론 그것은 根本的 改宗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內部에서 蠢動하고 있는 유대教의 再生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考察만으로 그를 無神論者라 斷定지울 수 없을 것이며 그렇다고 그를 참다운 有神論者라고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는 懷疑主義라는 부드러운 베일속에 自身을 감추고 있었던 것이다. 同時에 그는 精神的 葛藤의 渦中에 있었으며 信仰과 信仰否定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었던 것이다.

Kafka의 <絶對>에의 鬭爭은 유대教信仰과 그 否定의 對立相만이 아니고 훨씬 廣範하게 展開되고 있었으며, 이것만으로 이 鬭爭을 把握하기란 더욱 困難하다. 이 鬭爭에는 基督教思想이 介入되어 있다. 그리하여 그는 Brod의 『異教, 基督教, 유대教』<sup>23)</sup>에 關心을 나타낸다. 어느날 Janouch가 이 著書에 대한 그의 關心과 期待를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진 神의 恩寵을 입는 올바른 享有者가 되고자 努力하고 있지요. 진 期待를 걸고 보고있는 겁니다. 恩寵은 찾아올지도 모르죠. 안올지도 모르지요. 이런 沈着한 듯한, 沈着하지 못한 듯한 期待란 곧 恩寵의 徵兆이든지, 恩寵 그것일지도 모르니까요. 진 그걸 알 수가 없거든요. 허나 그렇다고해서 진 不安해지지는 않으니깐요. 진 그러는 동안에 自身의 無知와 벗이 되어버린 겁니다.]<sup>24)</sup>

그는 Kierkegaard 및 Dostojewski에게 깊은 關心을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Pascal을 耽讀했으며 Léon Bloy도 읽고 있다. 그래서 그는 Janouch에게 Bloy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

21) a. a. O. S. 147.

22) Max Brod : Über Franz Kafka, Fischer Taschenbuch Verlag, 1974 (Fischer Bücherei Bd. 1496), S. 246—247.

23) Max Brod : Heidentum, Christentum, Judentum. Ein Bekenntnisbuch, München, 1921을 가리킴.

24) G. Janouch : Gespräche mit Kafka. Erinnerungen u. Aufzeichnungen, S. Fischer Verlag, 1951, S. 111.



「전 Léon Bloy에 관해선 反유대主義에 抵抗하는 그의 <유대인에 의한 救濟><sup>25)</sup>를 알고 있죠. 여기서 유대인들은 한사람의 基督教徒에 의하여—더욱 불쌍한 同類처럼—保護되는거죠. 그건 매우 興味가 있어요. 거기서—Bloy는 罵倒하는 能力이 있거든요. 그건 아주 異常한 거예요. Bloy는 情熱도 있구요. 그건 豫言者의 情熱을 聯想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Bloy는 罵倒하는 쪽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건 쉬 說明할 수 있지요. 그의 情熱은 現代의 온갖 汚物로 키워져 있기 때문이에요,」<sup>26)</sup>

원래 그는 基督教나 카톨릭教에도 反感을 가지진 않았다. 그는 이들 宗教에 대하여 몇차례 辛辣한 見解를 披瀝한바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基督教의 周圍를 맴도는 한갓 異邦人의 見解에 불과했던 것이다.

「Alle Leiden um uns müssen auch wir leiden. Christus hat für die Menschheit gelitten, aber die Menschheit muß für Christus leiden.」<sup>27)</sup>

이 말은 정녕 基督教의이며 거의 使徒의 傳言을 聯想하게 하는 것이다. 예수는 人類의 모든 苦惱를 짊어지려했지만 使徒들은 예수나 모든 人間의 苦惱를 같이하기 위하여 苦惱를 求했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Kafka가 이 길을 끝까지 걸지 않았다는 事實은 否定할 餘地가 없을 것 같다. 게다가 이를 죄다 一般化해 버릴 수도 없는 것이다. 그에겐 이와는 다른 基督教의 試圖의 痕跡이 남아 있다. 作品 『Amerika』에서의 郊外의 禮拜堂, 『Der Prozeß』에서의 寺院의 不可思議한 役割 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결코 單純한 偶然만은 아닐 것이다. 뿐만 아니라 『Der Prozeß』에선 온갖 象徴이 하나의 不可思議한 混淆(Vermischung)를 나타내고 있다.

거기엔 이태리인, 밤, 騎士의 갑옷, 人跡없는 寺院에 나타나는 한사람의 修道僧 등의 이러한 Thema가 주어져있긴 하나 이는 讀者로 하여금 Gothic romance와 아주 흡사한 霧圍氣속으로 빠져 들게 하는 것이다. 一般的으로 Gothic romance엔 Katholik에 대한 일종의 鄉愁와같은 反感이 刻印된 것처럼 생각된다. Kafka는 여기서 Josef K.와 함께 聖化된 카톨릭教의 世界를 內面的으로 徘徊하고 있는 것이다. 더우기 밤, 自己保存, 異國의인 牽引이 不可思議하게 混淆된 狀態에서 彷徨하는 것이다.<sup>28)</sup>

이러한 점에서 Kafka와 主人公과의 神秘的인 同一視는 지극히 一貫되어 있으며, 例컨데 1912年 1月 27日의 日記에는 다음과 같은 記錄이 나타나 있을 정도다.

「Trotzdem ich dem Hotel deutlich meinen Namen geschrieben habe, trotzdem auch sie mir zweimal schon richtig geschrieben haben, steht doch unten auf der Tafel Josef K. Soll ich sie aufklären oder soll ich mich von ihnen aufklären lassen?」<sup>29)</sup>

## B. Kabbala와 Zionismus

그러나 Kafka의 地平은 四方으로 向하여 먼곳에까지 뻗치고 있다. 그는 神秘的인 여러가지 教義, 그중에서도 印度 및 Platon의 輪廻說에 대하여 즐낀 言及하고 있다. 언젠가 Janouch가 印度의 宗教書<Bhagavad Gita><sup>30)</sup>를 그에게 빌려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25) Léon Bloy : Le Salut par les Juifs, A. Desnay, Paris, 1892를 가리킴.

26) G. Janouch : Gespräche mit Kafka, S. Fischer Verlag, 1951, S.44.

27) F. Kafka : Hochzeitsvorbereitungen aus dem Lande und andere Prose aus dem Nachlaß, Fischer Taschenbuch Verlag, 1976, S.86.

28) 拙稿 : Franz Kafka(1), 濟州大學 教養課程部 論文集, 第5輯, S.43—48, 1976 參照.

29) F. Kafka : Tagebücher, 1910—1923. Fischer Taschenbuch Verlag, 1976, S.413 (F. Kafka Gesammelte Werke, Hg. von Max Brod, Taschenbuchausgabe in 7 Bdn, Bd.7).

30) Edwin Arnold의 Sanskrit 語譯에 의한 詩의 形式으로 Franz Hartmann의 獨譯版을 말함.

[印度의 宗教書가 절 誘惑하는 點도 있긴 합니다만 同時에 저에게 싫증같은 것도 느끼게 하니까요. 毒物처럼 그런 어떤 誘惑의인 것과 威脅의인 걸 內包하고 있거든요. 이들 Joga<sup>31)</sup>와 巫術師들은 죄다 自由에 대한 열렬한 사랑에 의해서가 아니라 生에 대한 이루 表現할 수 없을 정도의 冷酷한 嫌惡로서 自然的 捕虜가 된 生을 支配하는거죠. 印度의 苦業의 源泉은 끝없는 悲觀主義(Pessimismus)이니까요.]<sup>32)</sup>

이러한 極端的인 斷定에는 Kafka 自身の 態度가 아주 分明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는 一般에게 認識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生에 대한 一切의 pessimistisch한 概念을 斷乎히 拒否하고 있다.<sup>33)</sup> 이와 類似的한 反撥과 牽引의 混淆는 Theosophie(神智學), 다시 말해서 그가 언젠가 Berlin에서 만났던 R. Steiner博士의 Antrophosophie(人智學)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다.<sup>34)</sup> 더우기 그는 그것에 의해 誘發되는 混淆를 두려워하고 있다.

이와 反對로 유대의 秘敎, 그중에서도 <Kabbala><sup>35)</sup>와 <Chassidim><sup>36)</sup>에 대한 그의 關心은 그의 生의 向方에 있어서 本質的으로 아주 親近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몇몇 斷片的인 言及끝에 Zionismus가 介在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文學은 실로 하나의 새로운 秘密의 敎義, 하나의 Kabbala로 發展했을 지도 모른다고 그는 斷言하고 있다.

[Diese ganze Literatur ist Ansturm gegen die Grenze, und sie hätte sich, wenn nicht der Zionismus dazwischengekommen wäre, leicht zu einer neuen Geheimlehre, einer Kabbala entwickeln können.]<sup>37)</sup>

이 最後의 斷言은 1922年 1月 16日의 일이지만 그것은 1919年의 『아버지에의 편지』에서 그가 말했던 바 <完全히 새로운 유대敎><sup>38)</sup>를 한번 더 強調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유대敎와의 關係야말로 Kafka의 精神的 過程을 돌이켜보는데 있어서 그 是非를 檢討해보지 않으면 안되는 基本問題가 되는 것이다.

이 유대敎에의 回歸의 原因을 그는 단지 유대인과의 交友關係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그것은 훨씬 多樣하고 積極的인 것이었다. Janouch의 觀察에 의하면 어느날 그들이 <勞働者災害保險局>(Arbeiter-Unfallversicherungsanstalt)을 나섰을 때, Kafka가 머리를 땅에 조아려 큰절을 하며 몸을 뒤흔들면서 로마 敎會式의 크다란 十字를 긋는 것을 보고 그가 어리둥절해 하자 Kafka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31) 瑜伽敎의 修業者.

32) G. Janouch : Gespräche mit Kafka, S. Fischer Verlag, 1951, S. 52.

33) vgl. Max Brod : Über Franz Kafka, Fischer Taschenbuch Verlag, 1974, S. 307.

[Alles was ich bezeugen will, liegt in dem einen Satz beschlossen : Nicht nur solche Stellen gibt es bei ihm, er ist nicht der Dichter des ausschließlichen Pessimismus, sondern es finden sich bei ihm auch Wege der Hoffnung, Wege der Erlösung, die umso subtiler, aufrichtiger, überzeugender locken, je seltner sie sich zeigen.]

34) vgl. F. Kafka : Tagebücher 1910—1923. Fischer Taschenbuch Verlag, 1976, S. 40. u. S. 42—43.

35) Kabbala는 원래 Hebräisch의 <傳承>(Überlieferung)의 뜻이지만, 神이나 世界에 대하여 繼承된 秘義로서 유대思想에 展開된 神秘說을 말함.

36) Kabbala思想의 影響을 받은 일종의 復古運動. 18世紀初 無名의 유대인 Israel Ben Elieser에 의해 시작된 유대敎內部的 革新的 神秘主義的 宗教運動으로서, 유대敎를 律法을 아는 사람으로 부터 살아가는 사람의 손에 되돌리려는 것이며, 이는 東歐의 素朴한 유대인들 사이에 強한 影響을 갖고 번져갔다.

37) F. Kafka : Tagebücher 1910—1923. Fischer Taschenbuch Verlag, 1976, S. 405—406.

u. vgl. W. Emrich : Franz Kafka, Athenäum Verlag, 1970, S. 60.

u. vgl. Max Brod : Über Franz Kafka, Fischer Taschenbuch Verlag, 1974, S. 86, S. 292, S. 236.

38) 前出 註19 參照.

「방금 전 Tschecho말로—sakramentská velká zima!라 했죠. 耶頭를 한 것은 몹시 壓倒되어서죠. 몸을 흔든건 춤다는 걸 나타내는 옛 方式이구요. 그리고 十字를 그은 것은 진짜 sakramentská예요. 어떤 시상이나 몸짓이든 그것이 信仰에 차 있으면 神聖한 거니까요.」<sup>39)</sup>

Kafka가 眞心에서의 Zionist였다는 事實은 여기에도 나타난다.

「오늘날 유대인은 이미 時間속의 이런 英雄의 故鄉인 歷史란으로 滿足하진 않습니다. 그들은 空間속의 아주 작은 當然한 鄉土에 마음이 끌리는 겁니다. 요즘 많은 유대靑年이 Palästina<sup>40)</sup>로 돌아가죠. 그건 自己自身에의, 自身의 <뿌리>에의, 成長에의 復歸니까요. 故鄉 Palästina는 유대인에게 있어선 絶對絶命의 目標입니다. 거기에 反하여 Tschechoslowakei는 Tschecho人에 있어선 하나의 出發點인 셈이지요.」<sup>41)</sup>

Kafka의 깊은 孤獨의 悲劇과 眞實에 관해서는 어떻게든 表現될 수가 있다 하겠으나 그렇다고 그가 실제로는 아주 社交的이며 快活한 性格의 所有者였다는 事實은 결코 넘겨버려서는 안 되리라 생각된다. 그는 沈鬱한데다 對人關係가 좋지 못하고 언제나 緊張해서 人間嫌惡의 어두운 생각에만 잠겨있었다고 믿어버린다면 커다란 過誤를 犯하게 되는 것이다. Brod는 Kafka와의 親交의 즐거움을 이렇게 쓰고 있다.

「—es war ein großes Glück, in Kafkas Nähe zu leben und seine lebhaft hervorsprudelnden Gedanken (selbst seine Hypochondrie noch war einfallsreich und unterhaltend) aus erster Hand zu genießen.」<sup>42)</sup>

Kafka는 休暇를 利用하여 즐겨 旅行을 하곤 했다. Brod와 함께 Österreich, Schweiz, Deutschland, Itay, Frankreich 等地로 갔으며, Prag에서의 日常生活에서도 그는 심심찮게 Cafénä 講演會, 劇場 等地를 다니면서 거기서 많은 知己를 사귀었다. Brod를 위시하여 哲學者 Felix Weltsch, 詩人 Oskar Baum, 그중에서도 親분이 두터웠던 사람으로는 Martin Buber, Franz Werfel, Otto Pick, Ernst Weiß, Willy Haas, Rudolf Fuchs 등의 藝術家이며, 또 俳優 Klug夫妻, Tschissik夫妻, 특히 Isak Löwy를 들지 않으면 안된다.<sup>43)</sup> 이들과의 親交가 Kafka의 運命에 있어서 決定的인 意義를 갖게되는 것은 이들이 모두 申歐유대系 인텔리의 엘리트들이었기 때문이다. 實例로 그는 Janouch에게 스스로 獨逸 및 佛蘭西旅行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Brod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旅行이 우리들의 友情을 敦篤히 해줬던거죠. 그건 아주 當然한 것이었으니까요. 보이지 않는 周圍에 의해 本質的으로 가까운 것, 類似한 것이 우리들에게 여럿것보다도 더욱 明瞭하게 分明해지는 거예요. 그게—생각컨데—유대人에 대한 유럽的 權衡의 <뿌리>이기도 하나니까요. 유럽 함께 旅行을 하면서 서로를 남들보다 잘 觀察하는 겁니다.」<sup>44)</sup>

1910年 Kafka는 Löwy 및 그 패거리의 俳優들과 만나고 있다. 1911年の 日記에 의하면 그가 演劇에 大端한 關心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作品中에 나타나 있는 많은 場面, 그중에서도 『Ein Brudermord』의 Fragment 등은 演劇의 觀客이 쓴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問題는 單純히 이

39) G. Janouch : Gespräche mit Kafka, S. Fischer Verlag, 1951, S. 65—66.

40) 當時 Palästina는 터키 帝國의 植民地였음.

41) G. Janouch : Gespräche mit Kafka, S. Fischer Verlag, 1951, S. 68.

42) Max Brod : Über Franz Kafka, Fischer Taschenbuch Verlag, 1974, S. 90.

43) vgl. a. a. O. S. 95—99.

44) G. Janouch : Gespräche mit Kafka, S. Fischer Verlag, 1951, S. 71.

것만은 아니다. 이들 패거리가 上演하고 있었던 것은 Jiddisch<sup>45)</sup>에 의한 유대의 民衆劇에 단 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Kafka는 그 레퍼터리와 유대의이고 庶民的인 온갖 모습들에 魅了되어 거기에 表現되고 있는 Diaspora의 狀態에 처해 있는 유대魂에 마음을 빼앗긴다.<sup>46)</sup> 어느날 Janouch가 그에게 Diaspora의 語意를 물은 적이 있었다.

[그건 유대民族의 散亂에 대한 諷刺語名이며 헤브라이語의 <Galut>지요. 유대民族은 人種이 撒布된 것처럼 散亂해 있는 거예요. 낱알이 周圍의 物質들을 끌어들이고 그걸 모아 自身의 生長을 높이듯, 유대民族은 人類의 힘을 自身속에 끌어들이고 純化하여 보다 높은 곳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그들의 宿命的 課題니까요. Mose는 依然한 現實이예요. Abraham과 Dadan이 Mose에게 <Lo naale! — 올라가 주는건가!> 라는 말로 抵抗한 것처럼 世界는 反유대主義의 絶叫로 抵抗하는 거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人間性에까지 오르지 못하고 種族의 動物學的 어두운 深淵에로 墜落해 버리니까요. 사람들은 유대人을 때리고 人間을 쳐죽이는 겁니다.]<sup>47)</sup>

헌데 이들 劇團은 當初 東歐에서 來演하고 있었으며 Kafka는 Löwy와의 親交를 통하여 波蘭 및 러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人의 風俗과 精神的 危機에 대하여 想像조차 할 수 없었던 온갖 깊은 洞察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sup>48)</sup> 그리하여 1911年 우선 그는 Löwy를 통하여 그후 1915년에는 西部 및 東部 유럽의 유대人 사이에 組織된 民衆集會(Volksgemeinschaft)를 통하여 東部 유대人의 神秘的 大運動인 Chassidim에 대하여 깊은 關心을 갖게 된다.<sup>49)</sup> 또한 이 해에 Kabbala의 著述家며 實踐的인 Chassid인 Georg Langer를 알게 되며 그를 中裁로 한 사람의 神秘的인 Rabbi를 알게 된다.<sup>50)</sup> Kafka가 이 運動의 歷史와 神秘를 詳細하게 알게 된 것은 이 Langer로 부터였다.<sup>51)</sup> 前述한 Martin Buber와도 그는 親交가 있었으며, 이 Buber는 世界的 名聲을 지닌 Chassidim의 著述家였다. 1922年 그는 이 Buber의 Chassidim에 관한 著作中의 하나에 沒頭하고 있다.<sup>52)</sup>

Chassidim의 定義는 神秘的인 信仰의 한 運動이다. 유대人의 歷史에는 이러한 事例가 흔히 알려지고 있으나 當時 그 命脈을 維持하고 東歐에서 支配의이었던 가장 重要한 것은 18世紀 Israel Baalschem에 의해 그 基礎가 세워졌던 것이다. Gerschom Scholem은 유대 神秘主義에 관한 그의 著書<sup>53)</sup>에서 Chassidim과 Kabbala의 類似點과 相異點을 아주 興味있는 方法으로 強調하면서 前者의 뛰어난 點을 特徵지우고 있다.

[Chassidim運動에 있어서 Kabbala主義는 이미 神智學의 形式을 取하고 있진 않다. 正確히 말해서 Theosophie는 그 全理論을 包含하여 完全히 放棄되어 있는 實情은 아니나 적어도 그것은 이미 宗教的

45) Jiddisch란 獨逸語方言에 Balt-Slav系 Hebräisch가 混合된 것으로 유대투의 獨逸語(Judendeutsch)를 가리킴.

46) vgl. Max Brod: Über Franz Kafka, Fischer Taschenbuch Verlag, 1974, 100. u. S. 249—250.

47) G. Janouch: Gespräche mit Kafka, S. Fischer Verlag, 1951, S. 71—72.

48) vgl. Max Brod: Über Franz Kafka, Fischer Taschenbuch Verlag, 1974, S. 99.

[Den Schauspieler Löwy handelte er als einen Freund, ...ließ sich das ganze Leben, Umwelt und Entwicklung dieses leidenschaftlichen Menschen erzählen, erhielt tiefe Einblicke in Bräuche und geistige Krise der polnisch-russischen Judenheit.]

49) vgl. a. a. O. S. 271, S. 274.

50) vgl. a. a. O. S. 137.

51) F. Kafka: Briefe 1902—1924. Fischer Taschenbuch Verlag, 1975, S. 142—146의 Max Brod에의 편지 및 S. 146의 Felix Weltsch에의 편지 참조.

52) F. Kafka: Tagebücher 1910—1923. Fischer Taschenbuch Verlag, 1976, S. 530.

[Maggid. Der große Maggid (Prediger), Titel eines Buches von Martin Buber über den chassidischen Rabbi Dow Bär von Mesritsch, einen Jünger des Baalschem. Auf dieses Buch bezieht sich auch die erste Eintragung vom 12. Mai.]

53) G. Scholem: Die jüdische Mystik in ihren Hauptströmungen, Frankfurt am Main, Alfred Metzner Verlag, 1957을 가리킴.

意識의 中心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Chassidim은 어디까지나 實踐的인 神秘神學(Geheimlehre)이다. 다시 말하면 新宗派의 明白한 特徵은 神國의 諸神秘는 一種의 神秘的인 心理學의 形式下에 提示되어 있다고 하는 事實에 있다. 人間은 自身の 深淵에 下降함으로써 世界의 모든 次元(Dimension)을 獲得한다. 人間은 自己存在의 內部에 있어서의 각각의 圈域을 分離하고 있는 障害를 排除하고, 드디어는 그 存在의 內部에 있어서의 自己存在의 自然性에 달라붙어있는 制限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이며, 그 生涯를 끝낼 때에는 말하자면 自身の 彼岸에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한 채 神은 <모든 것의 모든 것>이며 <神外的 어떤 것>도 存在하지 않음을 아는 것이다.」<sup>54)</sup>

이 變容의 一聯의 發展段階에는 참다운 精神上的의 大悟가 따른다. Torá<sup>55)</sup>를 研鑽하여 戒律을 達成한다면 그때 人間의 肉体는 靈魂의 玉座가 되고 靈魂은 Shekhinah<sup>56)</sup>의 光明의 玉座가 된다. 이 光明은 말하자면 人間의 周圍에 擴散되어 人間은 이 光明의 한복판에 坐定하여 歡喜에 떠는 것이다.<sup>57)</sup>

Kafka가 Chassidim의 影響을 어느 정도 받았는지는 且置하고라도 그가 이에 대해 오래동안 깊은 關心을 품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事實이다.<sup>58)</sup> 또한 그가 <不壞의 것(das Unzerstörbare)의 近接에 다다르려는 存在의 內面的 過程><sup>59)</sup>에 대해 그러했듯이 見神(Gottsuchen)의 諸狀態에 대하여 나타낸 格別한 關心<sup>60)</sup>과 Chassidim사이에는 興味깊은 並行現象이 있는 것도 事實이다.<sup>61)</sup> 그러나 그보다 앞서 Chassidim에 못지않게 Kafka에게 깊은 關心을 가졌던 다른 유대인들의 動向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Zionismus가 가장 繁昌했던 것은 바로 이 時代다. 當時 Palästina에는 이미 많은 유대인이 移住해 있었다. 그리하여 이 運動의 國際的 組織도 다소 進展해 있었으며, 1913년에 이르러 Zionismus 問題는 Kafka의 知性的 中核에 激烈히 타오르고 있었던 것이다. Kafka는 그의 日記에 言及하고 있진 않으나 Brod의 1913年 1月 18日과 8月 23日의 日記에 의하면 Huber를 위시하여 Werfel, Pick, Baum과의 사이에 오랜 鬭爭이 繼續되고 있다. 때문에 Brod는 雄辨하고 Kafka는 沈默한다.

「Gespräch über Gemeinschaftsgeföhle. Kafka sagt, er habe keines, weil seine Kraft nur eben für ihn hinreiche.」<sup>62)</sup>

54) vgl. a. a. O. S. 359 u. S. 117ff.

55) 舊約聖書에 있어서의 神의 律法.

56) 榮光의 빛에 의한 神의 顯現.

57) vgl. G. Scholem: Die jüdische Mystik in ihren Hauptströmungen, Alfred Metzner Verlag, 1957, S. 354. u. Max Brod: Über Franz Kafka, Fischer Tasschenbuch Verlag, 1974, S. 282ff.

58) vgl. a. a. O. (Max Brod) S. 271f.

59) W. Emrich 教授는 Franz Kafka, in: Deutsche Literatur im 20. Jahrhundert, 5. veränd. u. erweit. Aufl. Hg. von Otto Mann u. Wolfgang Rothe, Bd. II. Gestalten, Francke Verlag, Bern u. München, 1967, S. 182—201의 S. 188에서 「Kafka가 말하는 바 <Das Unzerstörbare>란 <Aufsteigen in die hohe Freiheit>이며 그것은 모든 外觀的 合法性을 止揚함으로써 만이 到達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그것은 經驗的으로 持續하는 것도 아니며 人間의 先驗的 圈內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人間의 絕對的 自己는認의 過程(der Prozeß einer absoluten Selbstrechtfertigung)에서 생겨나는 것이다」고 말하고 있다.

60) vgl. G. Janouch의 <Kafka와의 對話> S. 112에서 Kafka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神이란 個人的으로 把握될 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自身の 生命과 제 나름의 神을 갖고 있으니까요. 自身을 辨護하고 裁判하기도 하는 사람을 말입니다. 牧師와 儀式같은 것은 靈魂의 결됨말이 體驗의 지팡이에 불과하는 거니까요.」

61) vgl. Max Brod: Über Franz Kafka, Fischer Taschenbuch Verlag, 1974, S. 287.

62) a. a. O. S. 100.

論爭은 점차 激論이 되어 一種의 誤解를 낳는다. 그러나 마침내 Kafka는 徐徐히 意見을 바꾸어 Zionismus에 情熱을 기울이기 始作한다. 그런데 Zionismus는 Palästina에서의 猶太人故國建設이 第1次世界大戰의 結果에 의한 터키植民地에서의 解放과 1917年の 有名한 Balfour宣言<sup>63)</sup>에 의하여 認定되기에 이르러 다시금 새로운 出發을 하게 되는 것이다. 1918~19년에 걸쳐 Brod는 戰鬪의 人 일에 率先하여 活躍하게 되고 Kafka는 Brod에게 關心을 기울이고 忠告를 아끼지 않았으며, 鼓舞 激勵하고 愛情깊은 贊意를 表했으며 援助를 아끼지 않았던 것이다.

Kafka의 <Die besitzlose Arbeiterschaft>(無產勞動者共同体)<sup>65)</sup> 計劃에 대한 異常한 記述도 1918年 전후에 쓰여진 것 같다. 이 共同体는 本質的으로 心的 貧困에 그 基礎를 두고있다. 이 計劃의 一部에 대해선 그의 菜食主義食餌療法에 대한 嗜好와 그의 社會的 理念 내지는 勞動者災害保險局에서의 體驗 등을 照明해보면 이를 理解할 수가 있을 것이다.<sup>66)</sup> 이러한 Kafka의 絶望的인 衝擊의 一例를 1913年 7月 2日의 그의 日記에서 살펴보면, 어떤 女人이 貧困과 굶주림으로 女息을 絞殺했다는 訴訟記錄을 읽고 그는 눈물을 흘리고 있다.

[Geschluchzt über dem Prozeßbericht einer dreiundzwanzigjährigen Marie Abraham, die ihr fast dreiviertel Jahre altes Kind Barbara wegen Not und Hunger erwürgte, mit einer Männerkrawatte, die ihr als Strumpfband diente und die sie abband. Ganz schematische Gedicht.]<sup>67)</sup>

그러나 이것만으론 充分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Kafka의 이 計劃이 修道僧의 가난한 念願을 훌륭히 轉換시켰기 때문이다. 이 念願은 修道院의 秩序가 멋대로 扮裝되어 如何히 冒瀆되어 왔는지를 다 아는 事實인만큼 Kafka의 이러한 轉換은 더욱 훌륭하고 近似한 것이다. 게다가 그가 構想하고 描寫하고 있는 <規則>은 가난이 타고난 그대로의 <秩序>下에 있는 것처럼 眞實로 嚴格한 것이 아니면 안된다는 點에 詳細히 對處하고 있는 것이다.<sup>68)</sup>

이러한 사랑과 警告의 結付는 當時로선 전적으로 默殺되어 有은만큼 더욱 感動的이다. 그러나 그것은 크게 색다른 것은 아니다. 어느 境遇이든 거기에는 唯一하고 同一한 根源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Israel의 豫言者처럼 가난에 대한 絶叫인 것이다. 그러나 Kafka의 境遇 그 計劃과 <約束의 땅>에의 回復의 精神的 物質의 中心을 이룬 Zionist의 새로운 勞動共同体(Arbeitskollektiv)<sup>69)</sup>의 理念과의 사이에는 一種의 聯關이 有은 것은 否定할 수 없겠으나, Kafka의 이 計劃은 實現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 計劃이 그의 思想을 明瞭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만은 事實에 속한다.

#### IV. 結 語

63) 1917年 11月 2日 當時 英國外相 A. J. Balfour에 의해 Palästina에 猶太民族의 故國建設이 認定된 宣言.

64) vgl. Max Brod: Über Franz Kafka, Fischer Taschenbuch Verlag, 1974, S. 101.

65) F. Kafka: Hochzeitsvorbereitungen auf dem Lande und andere Prosa aus dem Nachlaß, Fischer Taschenbuch Verlag, 1976, S. 93-94.

66) vgl. Max Brod: Über Franz Kafka, Fischer Taschenbuch Verlag, 1974, S. 77-78.

67) F. Kafka: Tagebücher 1910-1923. Fischer Taschenbuch Verlag, 1976, S. 225.

68) vgl. W. Emrich: Franz Kafka, Athenäum Verlag, 1970, S. 59-60.

69) Edward Joseph Flanagan에 의해 1917年 Nevraska의 Omaha 近郊에 세워진 <少年의 집>을 가리키는 것이며, Kafka는 Janouch가 入手한 이 <少年의 집>에 관한 雜誌記事를 읽고 言及하고 있다.

[저희들 마을들과 일들의 모두가 이러한 떠돌이 少年들의 勞動에 의해 이룩된 거니까요. 그들은 服從을 통해서 自由를 發見했던 거예요.] 前出<Kafka와의 對話> S. 77 參照.

Flanagan (1886-1948)은 Irland出生의 牧師로서 美國카톨릭 神父가 되었으며, 특히 靑少年 教育에 專念, 그 善導에 献身했고 第2次大戰後에는 戰災孤兒問題로 訪日, 그 解決方案을 指導했으며 歸國後에는 같은 目的으로 訪獨, 비행기 事故로 Berlin에서 死亡함.

Kafka의 유대教에의 回歸은 그가 유대人 親屬과 사귀고, 또 <鄉愁><sup>70)</sup>를 느끼며 그리하여 衝動的으로 이러한 計劃을 立案했다는 事實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훨씬 具體的인 樣相으로 實現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그의 Hebräisch에 대한 旺盛한 關心으로 나타난다. 1918年 35歲때 그는 Hebräisch 工夫를 始作하고 있다.<sup>71)</sup> 게다가 晩年의 數年間에 걸친 그의 熱誠的인 努力相은 死後의 memo類속에 <文學上의 일에 못지않을 정도의 Hebräisch練習>이라는 쪽지가 發見된 것으로도 充分히 알 수가 있다.

[Kafka lernte zu jener Zeit mit besonderem Eifer Hebräisch. (In seinem Nachlaß haben sich nicht viel weniger Papiere mit hebräischen Übungen als solche mit deutschen literarischen Arbeiten gefunden)]<sup>72)</sup>

이러한 그의 Hebräisch練習은 夢寐에도 잊지 못하는 故鄉 Palästina에의 隱居를 위해서였지만 이는 이루어지지 아니한다.<sup>73)</sup> 또한 그것은 그가 Miroslav Haller 教授主幹의 雜誌<Naše Řeč>(우리들의 言語)에 대한 關心을 Janouch에게 說明하고 있는 것으로도 짐작할 수가 있다.

[言語란 故鄉의 메아리를 發하는 呼吸이니까요. 전 말예요 —그런데 전 심한 喘息患者거든요. Tschecho語도 Hebräisch도 안되기 때문에 둘다 배우고 있죠. 하지만 생판 꿈을 쫓고있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서 우러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걸 어찌 바깥에서 찾아낼 수가 있겠어요.]<sup>74)</sup>

한편으로 그는 獨逸旅行時 Siegfried Lehmann 博士에 의해 創設된 Berlin의 <Jüdisches Volksheim>(유대庶民館)<sup>75)</sup>에 熱烈한 愛情을 품고 Brod와 함께 거기에 크다란 希望을 걸었다. 그리하여 그는 Felice를 이 組織에 參加시킨다.

[Dort fand er zufällig eine Ferienkolonie des Berliner jüdischen Volksheims vor, das, ... ihn wie mich mit Hoffnung erfüllt hatte. Schon an den Anfängen der Arbeit, die später in Palästina große schöne Ausmaße gewonnen hat, nahm er lebhaften Anteil, hatte seinerzeit auch seine Verlobte F. in Heims mitzuwirken.]<sup>76)</sup>

게다가 유대教는 가는 곳마다 蘇生하여 날로 그의 마음속에 成長하고 있었던 것이다.

[Kafka ist ja dem jüdischen Gedanken und der Wirklichkeit des echten Judentums von Jahr zu Jahr näher gekommen.]<sup>77)</sup>

70) 그의 Kanaan 에의 憧憬의 一面은 前出<對話> S. 75에서도 엿볼 수 있다.

[제가 태어난 유대人村 Karpfengasse로부터 故鄉까지는 限없이 멀어요. 유대人村에서 Dingskirche까지는 너무 너무 머니까요. 전 別個의 世界에 살고있는 人間인게죠.]

71) vgl. Max Brod의 前出<Über Franz Kafka> S. 148—149에는 1918年으로 되어 있으나, Hartmut Binder의 <Kafka Kommentar zu sämtlichen Erzählungen, Winkler Verlag, München, 1977> S. 39의 Zeittafel에는 1917年 初夏로 되어 있음.

72) Max Brod : Über Franz Kafka, Fischer Taschenbuch Verlag, 1974, S. 172.

73) 前出 註70 및 上記 Max Brod의 <Kafka論> S. 270—271, 上記 Hartmut Binder의 <Kafka Kommentar> S. 34 參照.

74) G. Janouch : Gespräche mit Kafka, S. Fischer Verlag, 1951, S. 95.

75) <Jüdisches Volksheim>은 當時 Berlin에 있었으나 지금은 Palästina의 Ben-Schem에 있음. 1923年 여름 Kafka가 누이 Elli와 그녀의 아이들과 함께 東海沿岸의 Müritz에 滯留하는 동안 (7月初旬부터 8月6日까지)이 Volksheim의 臨海學校가 거기서 열리고 있었으며, 그곳에서 그는 그의 마지막 戀人이었던 Chassist家系의 東部유대少女 Dora Diamant를 알게 되며, 그해 4월부터 年末까지 <Hochschule für die Wissenschaft des Judentums>에서 聽講함.

76) Max Brod : Über Franz Kafka, Fischer Taschenbuch Verlag, 1974, S. 171.

77) a. a. O. S. 267.

〈Kanaan의 땅〉은 바야흐로 無數한 등불이 되어 그의 머리위에 燦然히 빛나고 그리하여 멀리 彼岸에까지 그 빛을 닿게하고 있다. Brod의 말처럼 그는 오늘날 유대信仰의 改革者序列에 속하였던 것이다.

[In die Reihe der Erneuerer jüdischen Glaubens unserer Tage gehört Kafka.]<sup>78)</sup>

게다가 그야말로 決定的인 唯神論者인 同時에 참다운 Zionist였다는 事實은 정녕 再論의 餘地가 없다고 할 것이다.

[Dieser Auffassung nach ist der Dichter der entscheidendste Monotheist und zugleich Zionist.]<sup>79)</sup>

### Bibliographie

- Franz Kafka: Franz Kafka Gesammelte Werke, Hg. von Max Brod, Taschenbuchausgabe in 7 Bänden, Fischer Taschenbuch Verlag, 1976.  
 Bd. 6: Hochzeitsvorbereitungen auf dem Lande und andere Prosa aus dem Nachlaß.  
 Bd. 7: Tagebücher 1910—1923.  
 ders.: Briefe 1902—1924, Fischer Taschenbuch Verlag, 1975 (Fischer Bücherei Bd. 1575).  
 Max Brod: Über Franz Kafka, Fischer Taschenbuch Verlag, 1974 (Fischer Bücherei Bd. 1496).  
 ders.: Heidentum, Christentum, Judentums. Ein Bekenntnisbuch, München, 1921.  
 Wilhelm Emrich: Franz Kafka, Athenäum Verlag, Frankfurt am Main/Bonn, 1970.  
 ders.: Franz Kafka, in: Deutsche Literatur im 20. Jahrhundert, 5. veränd. u. erweit. Aufl. Hg. von Otto Mann u. Wolfgang Rothe, Bd. II. Gestalten, Francke Verlag, Bern/München, 1967, S. 182—201.  
 ders.: Zur Ästhetik der modernen Dichtung, in: Akzente 1, 1954, H. 4, S. 371—384.  
 ders.: Die Literaturrevolution u. die moderne Gesellschaft, in: Akzente 3, 1956, H. 2, S. 173—191.  
 ders.: Franz Kafka, Die Sorge des Hausvaters, in: Akzente 13, 1966, H. 4, S. 295—303.  
 Gustav Janouch: Gespräche mit Kafka, Erinnerungen u. Aufzeichnungen, S. Fischer Verlag, 1951.  
 Hartmut Binder: Kafka Kommentar zu sämtlichen Erzählungen, Winkler Verlag, München, 1977.  
 ders.: Kafka Kommentar zu den Rezensionen, Aphorismus u. zum Brief an den Vater, Winkler Verlag, München, 1977.  
 ders.: Motiv u. Gestaltung bei Franz Kafka, H. Bouvier u. Co. Verlag, Bonn, 1966.  
 Josef Rattner: Kafka u. das Vater-Problem, Ein Beitrag zum tiefenpsychologischen Problem der Kindererziehung. Interpretation von Kafkas 〈Brief an den Vater〉, München/Basel, 1964.  
 Gerschom Scholem: Die jüdische Mystik in ihren Hauptströmungen, Alfred Metzner Verlag, Frankfurt am Main, 1957.  
 Peter u. Beicken: Franz Kafka, Eine kritische Einführung in die Forschung, Athenäum Fischer Taschenbuch Verlag, 1974 (Fischer Bücherei Bd. 2280).  
 抽稿: Franz Kafka (I), 濟州大學 教養課程部 論文集, 第5輯, 1976.  
 抽稿: Franz Kafka (II), Die Sorge des Hausvaters 研究, 濟州大學 論文集, 第9輯, 1977.

78) a. a. O. S. 264.

79) Peter u. Beicken: Franz Kafka, Eine kritische Einführung in die Forschung, Athenäum Fischer Taschenbuch Verlag, 1974 (Fischer Bücherei Bd. 2280, FAT. 2014) S. 177 및 上記 Max Brod의 〈Kafka論〉 S. 270 參照.

[Getrieben von solch geheimen Kräften seiner Seele wurde Kafka Zionist.]